

Chomsky의 "언어"와 "문법"*

박 승 혁

(이화여자대학교)

"You may not agree with Chomsky's work, but it would be both short-sighted and unscholarly to ignore it."

(Smith 2000:vi)

Sung-Hyuk Park. 2002. Chomsky's Conception of Language and Grammar. *Studies in Modern Grammar* 31, 25-46. Chomsky's views on human language and the nature of linguistic inquiry are very widely referred to, but equally widely misrepresented. Such widespread misunderstanding of Chomsky's linguistic ideas seem, especially in Korea, to be due in part to misinterpretation of his conception of language and gramma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examine Chomsky's conception of language and grammar with a view to helping Korean critics of Chomskyan theory understand it in a reasonable manner. According to Chomsky, "there is a faculty of language FL, a component of the human mind/brain dedicated to language," and "FL undergoes state changes under triggering and shaping influences of the environment."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assumption of Chomskyan theory is the internalist conception of knowledge of a language, according to which such knowledge is constituted solely as part of the psychology of individuals. This special notion is accordingly referred to as "I-language," where I is to suggest "individual," "internal," and "intensional." The notion of language that is being investigated is the language of an individual (I-language), not the language of a community or a country or an era. An I-language L is thus defined as the language of an individual whose FL is in a state L (S_L). The notion of grammar should then be conceived of in the same vein: the term "grammar" is the linguist's theory of the I-language, universal grammar (UG) being the theory of the initial state S₀ of FL, which is uniform for the species.

Key words: Chomsky, (I-)language, (generative) grammar, minimalism

* 본고에 논의된 내용의 일부는 현대문법학회, 한국어영미어문학회, 신영어영문학회 및 한국영어학회에서 발표되었다. 질문과 조언을 해주신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현대문법연구의 익명의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 논문에 나타나는 모든 오류는 필자에 기인한다. 이 연구는 2000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1. 들어가는 말

관련 분야의 학도들에게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57년 *Syntactic Structures*의 출간을 통해 Noam Chomsky는 변형생성문법(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이라는 새로운 언어 이론을 세상에 제시함으로써 관련 학계에 소위 "츨스키 혁명"(Chomskyan Revolution)을 일으켰다(Newmeyer 1986). 그 이후 Chomsky는 끊임없는 연구 발표를 통해 자신의 언어 이론을 수정·발전시켜 1981년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을 출간함으로써 또다시 언어 분석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흔히 지배 결속(GB) 이론으로 알려진 이 이론은¹⁾ 언어 연구, 특히 통사론 연구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993년 Chomsky는 Lasnik과 함께 "원리와 매개변수 이론"(The Theory of Principles and Parameters)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1980년대의 연구를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언어 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의 등장을 예고하였다. 그는 같은 해에 출간된 "언어학 이론을 위한 최소주의 프로그램"(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PLT)에서 바로 이 새로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추구하려는 최소주의 문법론을 주창하였다.²⁾ 그 이후 Chomsky는 저서인 *Minimalist Program* (1995)을 비롯하여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MI)(2000b), "Derivation by Phase"(DbP)(2001a), "Beyond Explanatory Adequacy"(BEA)(2001b) 등의 논문들을 통해 최소주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미 Smith (1999), Carr (2002)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Chomsky는 언어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많은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³⁾ Chomsky의 언어 이론(또는 문법론)에 대한 오해는 국내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Chomsky의 언어 이론을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의 일부 통사론 분야 전공자들도 포함된다.⁴⁾ 나아가서 국

¹ Chomsky 자신은 이 이론을 "원리와 매개변수"(Principles and Parameters) 이론으로 부르기를 권고한다. Chomsky와 Lasnik (1993) 참조.

² Chomsky는 최소주의 프로그램을 "이론"(theory)으로 제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구계획"(research plan)으로 제시한다고 말하고 있다.

³ Chomsky 자신도 이러한 오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가끔 있다. 예를 들면 Chomsky (1976)는 Labov (1970)의 오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내 대학들의 어문 관련 학과의 비(非) Chomsky 어문학도들은 Chomsky의 언어이론에 대한 오해의 수준을 넘어 거의 감정적 차원의 적대감을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경우도 이따금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적대감의 원인은 무엇일까? 물론 전통적 언어분석(주로 문법연구)에 익숙한 기존의 어문학도들이 언어분석을 하나의 과학으로 접근하고 있는 Chomsky식 연구방법론에 일종의 거부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homsky식 언어연구에 대한 적대감의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Chomsky의 언어관/문법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고의 목표는 국내의 비 Chomsky 어학도들을 포함한 일반 인문학도들의 Chomsky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Chomsky의 언어 이론의 기본 목표와 출발 가설을 살피고 언어연구의 목적이 되는 언어와 문법의 개념을 재확인하려는 것이다.

2. 기본 가정

먼저 Chomsky식 언어분석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가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언어는 생득적"(language is innate)이라는 가설로서 Chomsky가 반세기에 가까운 언어 연구 과정에서 계속 견지해온 것이다.

- (1) 인간의 마음/대뇌(mind/brain)에는 언어에 관련된 재능—언어재능 (faculty of language: FL)—이 존재하며 이것은 다른 수행 체계들 (performance systems)과⁵⁾ 상호 작용하는 생득적 능력이다.

⁴ 논의의 성격상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기로 한다. 물론 본고의 필자 자신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한다. 꼭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국내에서 출판된 Chomsky 저서의 번역이나 Chomsky 언어이론의 해설서 등을 차근차근 읽어보기 바란다. 특히 최근의 최소주의 이론과 관련된 저서나 논문들에 유의하여 읽어보기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Chomsky식 언어 분석을 자처하는 논문들은 많이 발표되고 있으나 정작 Chomsky의 언어 이론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별로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의 생성문법학도들의 비중을 감안할 때 Chomsky의 언어이론의 이해를 위해 초학자들에게 권할 만한 해설서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도 흥미로운 현상이다. 나아가서 Chomsky의 언어관/문법관과는 배치되는 "Chomsky식" 언어분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위에 나타난 Chomsky의 기본 가정은 흔히 "언어생득설"(nativism)로 불리는 것으로, 20세기 전반을 풍미했던 행동주의 심리학을 근거로 하는 구조주의 (structuralism) 언어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가정이다. 언어재능은 유전적으로 (genetically) 결정된 생득적 능력이라는 Chomsky의 이러한 가정은 그 철학적인 근거를 데카르트(Descartes)의 이성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언어생득설은 언어가 인간 특유의 능력이라는 가설과 부합한다. 지구 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중에서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정상적인 인간은 적어도 하나의 언어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언어가 인간에게 고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 고유의 고등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을 정의하는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신적 특성도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이 날개를 갖고 태어나지 않고 두 팔을 갖고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도 인간 고유의 특성들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특성들 중에 언어적 능력이 포함된다.⁶⁾ 이러한 언어재능은 인간을 정의하는 다른 신체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진화(evolution)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언어재능은 간, 위, 눈 등과는 달리 신체로부터 분리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시각체계(visual system), 면역 계통(immune system), 순환계(circulatory system)등과 같이 인간의 신체에 존재하는 하나의 "기관"(organ)이다 (Chomsky 2000a,b). 신체의 각 기관들이 성장하듯 언어재능도 "자란다"(grow)(Chomsky 1980, 1986, 1995, 2000a,b 등). 따라서 언어재능은 인간 유전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시발 상태(initial state) So에서 상태 변화를 거치면서 성숙한 상태, 즉 언어학적으로 의의 있는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stable state) Ss에 이르게 된다.⁷⁾

⁵ 여기서 말하는 수행체계는 소리를 만들고 인식하는 감각운동체계(sensorimotor systems)와 의미를 담고 이해하는 사고체계(systems of thought)를 가리킨다. 이것은 바로 언어는 소리(sound)와 의미(meaning)의 결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생각과 일치한다.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수행체계 자체는 언어재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수행체계는 언어재능과는 별도로 존재하지만 언어재능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 외부로 표출될 때는 수행체계를 통해야만 한다.

⁶ 개를 아무리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가 방정식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⁷ Ss 상태라고 하여 상태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신체의 기관도 완전히 성장했다 라도 운동을 한다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언어재능 FL이

이러한 언어재능은 때때로 "언어습득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라 불리기도 했는데(Chomsky 1966, 1986 등) 이것은 주어진 언어적 경험(linguistic experience)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특정한 언어 L을 만들어내는 마음/대뇌의 본유적 부분으로서 경험을 달성된 지식 체계(attained system of knowledge)—즉 특정 언어 L—로 전환시키는 장치이다. 그렇다면 언어재능 FL의 본질(내용)은 무엇인가? Chomsky는 언어재능(또는 언어습득장치) FL을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언어들(attainable human languages)에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보편적 원리(principles) 체계라고 주장하고 있다(Chomsky 1980, 1986 등). 특히 언어재능의 시발 상태 So는 언어적 경험이 시작되기 전의 FL의 상태이며 유전적으로 결정된 인간의 본유적 능력으로서 Chomsky는 이것을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 UG)이라 부르고 있다.⁸⁾

결국 Chomsky의 주장에 따르면 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상당 부분이 태어날 때 이미 유전적 특성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인간은 출생 후 특정한 언어적 환경에서 경험을 통해 특정 언어 L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Chomsky가 이러한 언어 생득주의를 표방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Chomsky는 어떤 근거로 인간의 유전적 특성으로서 보편문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일까? Chomsky가 언어 생득주의를 표방하는 출발점은 바로 다음과 같은 "플라톤의 문제"(Plato's problem)이다.

(2) How can we know so much given that we have such limited evidence?

우리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발화(utterance)를 한다. 그런데 그 많은 발화된 문장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일부 고정된 상투어구—Jespersen (1924)의 "형식표현"(formula)에 해당하는 표현들: 예컨대, How do you do? Good morning! 따위의 고정된 표현들—를 제외하고 나머지 표현들은 (어휘는

안정상태 Ss에 이르는 시기는 언제일까? 개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6-7세 경이면 거의 안정상태에 이르고, 사춘기(puberty) 후에는 (어휘사전의 확장을 제외하면) 언어재능의 성장이 멈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⁸⁾ 인간의 언어재능 FL을 원리체계로서의 보편문법으로 보지 않고 단지 '언어를 배우려는' 성향(disposition)으로 보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Kenny (1984), Tsohatzidis (2002) 등을 참고하라.

같은 것들을 사용했다라도) 그 이전에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표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전에 말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표현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표현들을 발화하고 이해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단순히 들은 표현들을 기억해서 재(再)발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끊임없이 새로운 표현들을 만들고 이해할 수 있는가?

위에서 이미 암시되었듯이 Chomsky에 따르면 이러한 언어 생성의 "창조성"은 인간의 언어가 상당 부분 생득적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된다. Chomsky는 인간의 언어재능이 생득적임을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들을 제시한다. 이 증거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세계의 모든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외견상으로는 다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언어의 보편성(universals)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자극의 부족"(poverty of stimulus)이다.

세계에는 수천 개의 각기 다른(달리 보이는) 언어가 있지만 인간이 습득할 수 없는 언어는 없다. A라는 어린이가 세계의 어떤 언어 환경에서 태어나더라도 피부색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그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이것은 곧 모든 인간의 언어들은 인간(어린이)이 습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언어들은 동일한, 보편적인 어떤 추상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언어가 어떤 보편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인간 자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언어가 인간 자체의 특성이라고 함은, 인간의 언어는 인간만이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외계의 어떤 별에 사는 생물체가 인간의 언어에 해당하는—그러나 인간의 언어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지구의 인간이 그 별에서 태어난다면 그 "무엇"을 습득할 수 있을까? 반대로 외계의 그 생물체가 인간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 인간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을까? 언어생득설의 입장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은 갓 태어난 침팬지가 인간 사회에서 생활한다고 해도 인간의 언어를 습득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언어와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진 그 "무엇"은 인간의 언어가 될 수 없으며 인간이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언어는 그 기본적 체계가 인간에게 보편적이며 그것은 곧 인간 자신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

라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언어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유전적 특성이라고 판단된다.⁹⁾

다음으로 "자극의 부족"에 입각한 언어 생득설의 논증을 보자. 이 논증의 요지는 인간이 교육받은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 입력된 정보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2)에 제시된 플라톤의 문제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겪게되는 언어적 경험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언어적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날개를 갖지 않고 팔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재능은 생득적이라고 보아야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언어는 많은 부분이 생득적으로(즉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충분한" 후천적 언어 경험만으로도 언어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Chomsky의 이러한 생득설은 언어를 하나의 "습관 체계"(system of habit)로 보는 행동주의자들(behaviorists)이나 구조주의자들(structuralists)의 언어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언어습득을 유추(analogy)의 문제로 다루려는 이들의 설명을 거부하는 것이다.¹¹⁾ Chomsky (1986)는 언어 습득이 결코 유추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 (3) a. I wonder who [the men_i expected to see them_i]
 b. *[The men_i expected to see them_i]

(3a)와 (3b)의 [] 부분을 비교해 보면 전자에서는 대명사 them이 the men을 가리킬 수 있지만 후자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영어를 알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학교에서 받은 문법 교육 때문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에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또한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로

⁹ 물론 나무를 한국어에서는 [namu], 영어에서는 [tri:], 일본어에서는 [ki]라고 발음하는 소위 소쉬르적 임의성(Saussurean arbitrariness)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¹⁰ 그러나 Chomsky의 이러한 언어 생득설을 모든 학자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 생득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쟁의 대상이다. "자극의 부족"과 관련된 최근의 논쟁에 대해서는 The Linguistic Review 19 (2002)를 참고하라.

¹¹ 학문적인 전통 영문법의 태두인 Jespersen도 언어습득과정을 유추로 설명하려 했다 (Jespersen 1924).

미루어 보아 학교 교육과는 상관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유추에 의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 만약 (3b)에서 대명사 *them*이 *the men*을 선행사로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추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면 (3a)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3a)의 경우는 (3b)와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3a,b)와 같은 경우의 대명사 지칭 관계(referential relation)를 유추에 의해 배운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¹²⁾

그런데 바로 위에서 암시되었듯이 인간의 언어재능은 출생후 일정한 시기 내에 적절한 언어적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완성되지 못한다. 이것은 마치 인간의 눈(볼 수 있는 능력)이 출생 후 특정한 시기 내에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색을 구별 못하게 되거나, 입체적으로 물체를 볼 수 없게 되거나, 혹은 아예 시력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재능도 특정한 시기 내에 적절한 언어적 입력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¹³⁾

3. 언 어

위에서 살펴본 Chomsky의 언어에 대한 기본 가설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는 상당 부분이 생득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인종, 성별에 관계없이—은 인간이기 때문에 동일한 언어재능을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며 결국 인간이 출생 후에 습득하여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어떤 보편적인 사항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당장 한 가지 의문을 일으킨다. 이 세계에는 수천 개의 언어들에 있는데

¹² 이와 같이 언어적 표현 내부 요소들의 지칭 관계에 대한 이론을 흔히 결속이론(binding theory)이라 부른다. 결속이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다. Chomsky (1981)가 이 분야 연구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¹³ 이러한 가설을 "결정적 시기/연령 가설"(critical period/age hypothesis)이라 부른다. 즉 특정한 시기가 지난 후에는 일반적 원어민(native speaker) 수준의 언어를 습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성인들이 외국어를 배우기 어려운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가설은 또한 1798년에 발견된 Victor, 1920년에 인도에서 발견된 Amala와 Kamala (늑대에 의해 길러졌다고 알려짐), 그리고 1970년에 발견된 Genie와 관련된 연구 보고에서도 증명된다. 이들은 모두 출생후 상당 기간 동안 인간 사회와 격리된 환경에서 인간의 언어에 접촉할 수 없었던 아이들로서 다시 인간 사회로 돌아와서 언어적 환경에 노출되었지만—의도적으로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끝내 원어민 수준의 언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어휘나 문법 체계가 비슷한 것들도 있으나 외견상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언어들도 많다. 예를 들어 한국어와 영어는 일견하여 매우 달라 보이지만 어떤 점에서 보편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인가?

물론 본고의 목적이 인간 언어에 내재하는 보편성의 내용을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보편성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피하기로 한다. 그러나 언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보편성의 추구를 위해서는 먼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언어에 대한 분명한 개념 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Chomsky의 언어이론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언어"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언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외국에 언어 연수 간다," "영희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 "캐나다에서는 무슨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등의 표현에 나타나는 "언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과 Clarendon 출판사에서 발간한 *The New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의 정의를 보자.

(4) **언어(言語)**: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쓰이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 언어 감각/언어 구사/언어 습관/언어 규범/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언어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5) **language**: . . . A system of human communication using words, written and spoken, and particular ways of combining them; any such system employed by a community, a nation, etc. . . . < . . . *I answered him in Chinese, a language which I knew . . .* >

(4)와 (5)에 인용된 언어에 대한 두 사전의 정의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 사전들의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식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언어를 기능적인 면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해하려는 것과 언어의 외연(外延)적인 면에서 사회 정치적(sociopolitical) 또는 지리 정치적(geopolitical)인 체계로 이해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결국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언어는 '소리(음성)나 문자를 수단으로 하여 의사 소통

을 위해 어떤 사회적 집단에 의해 사용되는 관습 체계'가 된다.

이러한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정의되는 상식적 개념의 언어는 우리가 "한국어"(the Korean language), "영어"(the English language) 등을 언어라고 부를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가를 단위로 하는 언어의 사회 정치적 정의는 언어를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려 할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가령 Chomsky(1986)의 지적대로 중국어(the Chinese language)는 여러 개의 방언(dialect)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방언들도 포함된다. 이런 경우 중국어를 하나의 "언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화란어(Dutch)와 독일어(German)는 별개의 언어로 구분되지만 독일어의 일부 방언들은 오히려 독일어의 다른 방언들보다는 화란어에 훨씬 가까워 다른 독일어 사용자와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반면 화란어 사용자와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사회 정치적 정의는 언어의 내적 체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공간적 개념의 정의일 뿐이다. 결국 이러한 정의는 언어를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의가 된다.

언어에 대한 정의의 개념적 문제는 20세기 전반을 풍미했던 구조주의 언어 학자들의 언어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6) a. A language is the totality of utterances that can be made in a speech community.

(Bloomfield 1928/1933)

b. A language is both a social product of the faculty of speech and a collection of necessary conventions that have been adopted by a social body to permit individuals to exercise that faculty.

(Saussure 1959)

이들의 언어관에 의하면 언어는 사회적 관습 체계(conventional system)이며 그 외연(外延)은 그 특정한 사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발화의 총체(totality of utterances)이다. 이러한 구조주의자들의 정의는 상식적 개념의 사전적 정의와 별로 다른 것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은 언어를 과학적 연

구의 대상으로 할 때 대상 규정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면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령 영국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미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같은 언어인가 다른 언어인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중국 연변의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같은 언어인가 다른 언어인가?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언어 생성의 창조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발화의 총체"라는 개념도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특정한 "사회"의 공간적인 경계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발화"의 시간적 경계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의 영국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3000년 전의 영국에서 사용했던 언어는 같은 언어인가 다른 언어인가? 고기영어(Old English)와 현대영어(Modern English)는 같은 언어인가 다른 언어인가? 결국 구조주의자들의 정의 또는 일반 상식적인 정의에서는 언어의 실체가 규정되지 않는다. 실체가 규정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Chomsky(1980, 1986 등)는 사회 정치적이고 외연적인 개념으로 언어를 규정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실체가 없으므로) 과학적 분석/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연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언어는 무엇인가?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Chomsky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는 일종의 "정신적 기관"(mental organ)으로서 다른 정신적 기관들과 상호 작용한다. 그것은 마치 인체의 순환계(circulatory system)처럼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존재하며, 유전적 통제에 따라 발달하며, 다른 기관과는 상관없이 손상될 수도 있다. 따라서 Chomsky가 생각하는 언어의 소재지는 바로 인간의 머리(마음/대뇌) 속이다.

결국 인간 언어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분석의 대상은 개별 인간의 마음/대뇌 속의 언어이다. Chomsky는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언어를 내재언어(internal(ized) language: I-language)라고 부른다. 내재언어는 내포적(intensional)이며 개인적(individual)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외재언어(external(ized) language: E-language)와는 다르다. 내재언어는 한 개인의 정신/대뇌 속에 존재하는 언어이며 그 개인의 언어재능 FL의 상태(state)를 가리킨다. 이와는 달리 사회 정치적인 상식적 개념의 언어는 외재언어에 해당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재언어는 그 실체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언어의 본질을 추구하는 이론적 목적이 될 수 없다. 물론 외재언어

의 단편들이 내재언어의 본질을 찾는 분석 자료로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언어 이론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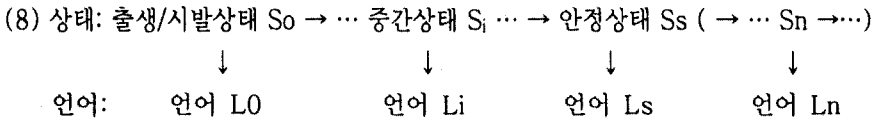
이미 잘 드러나듯이 사회 정치적 개념의 언어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언어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Chomsky와 Lasnik 1993).

- (7) a. 어떤 개인이 어떤 특정한 언어를 안다고 할 때 그는 무엇을 안다는 것인가?
- b. 그는 그러한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는가?

이 문제들은 결국 내재언어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한 개인이 어떤 언어 L을 안다고 말할 때의 언어는 그 개인의 마음/대뇌 속에 내재하는 언어를 뜻하는 것이며 그의 언어재능이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L 상태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Chomsky의 언어 이론에서 언어란 바로 인간 개인의 마음/대뇌 속에 존재하는 언어, 즉 내재언어를 의미하며 이 내재언어야말로 언어 이론의 목적이 된다.

4. 문 법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Chomsky의 언어 이론에서 언어란 내재언어를 지칭한다. 그런데 이 내재언어는 마음/대뇌의 상태이다. 내재언어는 인간이 출생하여 성장함에 따라 외부의 언어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라난다."



그렇다면 Chomsky가 말하는 내재언어의 "내용"(contents)은 무엇인가? Chomsky에 의하면 내재언어의 내용은 생성절차(generative procedure)이며 곧 문법(grammar)이다(Chomsky 1993a, Chomsky와 Lasnik 1993). 따라서 Chomsky에게 있어서 문법의 개념은 종래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게 정의된다.

Chomsky의 문법 개념을 좀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전통적인 문법관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B.C. 2세기경 그리스) 문법서로 알려진 *grammatikē technē* 'the art of grammar'의 저자 Dionysius Thrax는 문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9) Grammar is the technical knowledge of the language generally employed by poets and writers.

(from Dinneen 1967)¹⁴

문법을 글쓰기의 기술적 법칙으로 정의하는 이러한 문법관은 로마인들의 라틴어 문법서에 큰 변화 없이 계승된다. 12세기경 Peter Helias는 문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0) . . . the science that shows us how to write and speak correctly. . . It is the task of this art to order the combination of letters into syllables, syllables into words, and words into sentences . . . avoiding solecisms and barbarisms.

(from Dinneen 1967)

나아가서 이러한 그리스-로마의 전통적 문법관은 영어문법에 그대로 이어진다.

(11) Grammar, as I observed to you before, teaches us how to make use of words; that is to say, it teaches us how to make use of them in a proper manner, as I used to teach you how to sow and plant the garden; for you could have throwed [sic] about seeds and stuck in plants of some sort or other, in some way

¹⁴ Thrax는 이어서 문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t has six parts: (1) correct pronunciation, (2) explanation of the principal poetic tropes, (3) preservation and explanation of glosses and mythological examples, (4) the discovery of etymologies, (5) the discovery of analogies, and (6) a critical consideration of the compositions of poets, which is the most noble part of this science."

or other, without any teaching of mine; and so can any body, without rules or instructions, put masses of words upon paper; but to be able to choose the words which ought to be employed, and to place them where they ought to be placed, we must become acquainted with certain principles and rules; and these principles and rules constitute what is called Grammar.

(Cobbett 1823)

전통적 문법관에서는 말(spoken language)보다는 글(written language)에 초점을 두고 "올바른" 글을 쓰기 위한 기술로 문법을 인식함으로써 "규범적"(prescriptive)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학교 문법/교육문법에 그대로 계승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일부 생성문법학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법을 "문장을 만드는 법칙" 정도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문법은 인간 언어의 본질을 밝히는 과학적 학문 분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문장(글)을 "올바르게 읽고 쓰는" 기술을 익히는 분야로 인식되었다.¹⁵⁾

이러한 전통적 문법관은 언어 연구의 목적을 내재언어의 본질 규명에 두는 Chomsky의 언어관에서는 물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Chomsky에게 있어서 문법은 결코 글의 문법이 아니라 말의 문법이며, 규범적인 문법이 아니라 기술적인(descriptive) 문법이다. 이러한 말 위주의 기술적 문법관은 Jespersen (1924)을 비롯한 일부 학문적 전통문법학자들에 의해서도 피력된 바 있다.

- (12) . . . the spoken and heard word is the primary form for language, and of far greater importance than the secondary form used in writing (printing) and reading.

¹⁵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심지어 문법과 말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듯하다. "문법은 몰라도 말은 잘한다"라는 표현에서 그러한 생각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생성문법 분야 외의 인문학도들의 생각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일부 인문학도들은 "과학"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일종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언어학을 하나의 "과학"(science)으로 보는 생성문법학도들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감지된다.

물론 문법이 읽기와 쓰기에도 관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자 그 자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문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로 보아 문법과 문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언어를 "발화의 총체"로 보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관점에서 보면 문법은 외재언어에 관한 기술적 진술(descriptive statement)들의 집합체가 될 것이다. Bloomfield (1933)는 문법을 "어떤 언어의 형태(form)들에 대한 의미 있는 배열(arrangement)"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문법을 외재언어의 특성(property)으로 간주하기도 했다.¹⁶⁾ 언어에 대한 구조주의자들의 다음과 같은 태도는 문법의 개념을 외재화(externalize)할 수밖에 없다.

- (13) Language is well-defined object in the heterogeneous mass of speech facts. It can be localized in the limited segment of the speaking-circuit where an auditory image becomes associated with a concept. It is the social side of speech, outside the individual who can never create nor modify it by himself; it exists only by virtue of a sort of contract signed by the members of a community.

(Saussure 1959)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언어를 어떤 사회/집단을 형성하는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면 언어의 실체는 사실상 규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언어를 생성하는 문법도 실체를 규정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 Jespersen (1924)은 언어적 표현을 공식 표현(formula)과 자유표현(free expression)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How do you do?"와 같은 상투적 표현들을 일컫는 말이고 후자는 "I gave the boy a lump of sugar" 등과 같은 발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상투적인/자유로운 표현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Jespersen (1924)은 자유표현들의 생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뛰어난 관찰력을 보이고 있다.

¹⁶⁾ 이러한 구조주의적 관점에서는 기술적으로(technically) 말해서 문법을 외재언어의 구성요소(표현)들을 열거하는 함수(function)로 볼 수도 있다.

(14) While in handling formulas memory, or the repetition of what none has once learned, is everything, free expressions involve another kind of mental activity; they have to be created in each case anew by the speaker, who inserts the words that fit the particular situation. The sentence he thus creates may, or may not, be different in some one or more respects from anything he has ever heard or uttered before ... even without any special grammatical training we feel that the two sentences John gave Mary the apple, My uncle lent the joiner five shillings, are analogous, that is, they are made after the same pattern. In both we have the same type. The words that make up the sentences are variable, but the type is fixed.

이어서 Jespersen은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15) . . . how do such types come into existence in the mind of a speaker? An infant is not taught the grammatical rule that the subject is to be placed first, or that the indirect object regularly precedes the direct object; and yet, without any grammatical instruction, from innumerable sentences heard and understood he will abstract some notion of their structure which is definite enough to guide him in framing sentences of his own, though it is difficult or impossible to state what that notion is except by means of technical terms like subject, verb, etc.

Chomsky (1986)는 바로 Jespersen의 "구조에 대한 개념"(notion of structure)을 내재언어라고 명명한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내재언어는 학습자에 의해 습득되고 화자와 청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 언어를 아는 개인의 마음/대뇌의 어떤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Chomsky를 따라 언어를 내재언어로 본다면 문법은 곧 "내재언어에 대한 이론"(theory of the I-language)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대로 어떤 언어 L을 안다는 것은 개인의 특성(a property of a person)이므로 A라는 개인이 L을 안다는 것은 곧 A의 정신/대뇌가 어떤 특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좀더 좁혀서 말하면, 마음/대뇌 체계의 하나의 모듈(module)인 언어재능 FL이 어떤 특정한 상태 SL에 있다는 뜻이다. L은 곧 내재언어이므로 A가 L을 안다는 것은 A가 어떤 내재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법은 내재언어와 관련된 마음(정신)에 대한 이론이다.

결국 Chomsky의 입장에서 보면 언어와 문법은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8)의 도식에서 언어재능 FL의 시발상태 So는 곧 인간 공통의 "보편언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 시발상태 So(보편언어)에 대한 이론이 바로 "보편문법"이다. 나아가서 Chomsky는 보편문법 UG를 언어재능 FL의 시발상태 So로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원리(principle) 체계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보편문법은 인간 언어의 본질을 규정하는 보편적 체계라는 것이다.

(8)의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재능의 시발상태 So는 개인의 언어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다가 어떤 시기에 이르면 비교적 안정된 상태 Ss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어휘의 습득과 같은 주변적인 변화만 있을 뿐 핵심적 체계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언어재능의 시발상태 So 이후의 변화된 상태가 곧 내재언어이며 이 내재언어에 대한 이론이 바로 개별문법(particular grammar)이 된다.

이러한 가설에 입각하여 보면 언어재능 FL의 성숙상태(mature state)(즉 안정상태)의 내재언어는 분석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두 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 (16) a. 시발상태의 보편언어 부문
- b. 특정 언어에 국한된 부문

(16a)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상항(常項)(constant)이며 유전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의 정신적 특성이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논의된 바 있다. 반면에 (16b)는 인간이 출생 후 특정한 환경에 노출되어 언어적 자극에 의해 결정되는 부문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배운다"(learn)고 말할 수 있는 부문이다.¹⁷⁾

¹⁷⁾ 보편문법 UG는 매개변수(parameter)들을 가진 원리체계라고 가정된다. 개별 언어의

이렇게 형성된 내재언어는 유관한 모든 물리적 사건(event)—모든 음파(sound wave)—에 대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

- (17) a. 정해진 의미와 올바른 형식을 갖춘 표현
 b. 정해진 의미도 있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형식이 올바르지 못한 표현¹⁸⁾
 c. 형식은 올바르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표현
 d. 음성적 표시(phonetic representation)만 되어 있는 표현
 e. 소음(noise)

따라서 이러한 언어관/문법관에서는 외재언어라는 개념은 별로 의의가 없는 하나의 가공에 불과하다.¹⁹⁾ 반면에 언어재능 FL의 시발상태 So와 달성된 지식의 안정상태, 즉 내재언어는 특정한(개별 인간의) 정신/대뇌의 실제적 요소로서 물리적(physical) 세계의 양상이다.²⁰⁾ 바로 이러한 내재언어의 내용이 바로 문법이며 (과학으로서의) 언어학의 가장 우선적인 당면과제는 So와 내재언어의 내용, 즉 보편문법과 개별문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²¹⁾

습득은 언어적 경험을 통해 이 매개변수들의 값(value)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¹⁸ Chomsky (1986)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그 예로 들고 있다.

- (i) the child seems sleeping
 (ii) to whom did you wonder what to give? (일부 방언에서)
 (iii) who do you wonder to whom gave the book?

¹⁹ 외재언어는 현실 세계의 실체로서 규정될 수 없으며 임의적인 가공물이라는 점은 이미 위에서 논의하였다.

²⁰ Chomsky는 언어학이 심리학의 한 분야이며 궁극적으로는 생물학의 일부라고 주장한다(Chomsky 1968, 1975, 1980, 1986, 1995, 2000a, b 등). 언어 연구를 과학으로 보는 이러한 Chomsky의 언어관/문법관이 일부 언어학도들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어문학도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킨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²¹ "개별문법"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16b)에 해당하는 문법을 가리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내재언어의 이론을 가리키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속에 보편문법의 원리를 포함한다.

5. 결 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의 개념을 사회 정치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Chomsky는 이러한 사회 정치적 개념의 언어는 임의적이고 가공적인 것으로 그 실체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인간 언어의 본질을 구명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언어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며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대뇌에는 언어에 관여하는 언어재능 FL이 있으며 생득적 시발상태 So의 언어재능은 출생 후 언어적 자극에 의해 상태 변화(성장)를 거쳐 성숙한 안정상태 Ss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Chomsky의 언어관에서 보면 언어는 "발화의 총체" 또는 "올바른 문장들의 집합"과 같은 외재언어가 아니라 개인의 마음/대뇌에 내면화된 내재언어를 의미한다. 이 내재언어는 언어재능 시발상태의 보편언어 부문과 개인의 경험적 결과로 습득된 특정 언어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Chomsky의 언어관은 문법의 개념 규정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인 문법의 개념은 글을 올바르게 읽고 쓰기 위해 알아야 하는 문장의 법칙들로 이해되었다. 문법 연구의 목적은 글의 이론이 아니라 말(발화체)의 이론이라는 구조주의의 주장은 진실보한 것이기는 하지만 문법의 개념은 여전히 외재언어에 대한 기술로 남아 있었다. 외재언어라는 가공적 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한 이러한 언어관에서는 결코 인간 언어의 실재를 볼 수 없다. Chomsky는 자신의 내재적 언어관에 따라 문법을 "내재언어의 이론"이라고 본다. 내재언어가 언어재능 시발상태의 보편언어 부문과 개인의 경험적 결과로 습득된 특정 언어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면 문법은 보편문법 UG와 개별문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언어는 개인의 마음/대뇌에 내재하는 특성이며 문법은 이러한 특성의 내용에 대한 이론이다.²²⁾

<주제어: 촘스키, (내재)언어, (생성)문법, 최소주의>

²²⁾ 따라서 인간 언어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언어(과)학자의 기본적 목표는 바로 내재언어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연구에 있어서 특정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물론 비교통사론(comparative syntax)적 접근은 필수적이다. 차제에 한가지 언급해두고 싶은 것은, 언어 연구의 목적이 내재언어의 연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곧 비(非)Chomsky적 언어 연구는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참고문헌

- Bloomfield, L. 1928. A set of postulates for the science of language. *Language* 2. Reprinted by M. Joos (ed). *Readings in Linguistics*. Washington: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ciences, 1957.
- Bloomfield, L. 1933. *Language*. New York: Holt.
- Carr, P. 2002. Review on 'New horizons in the study of language and mind.' *Journal of Linguistics* 38, 147-152.
- Chomsky, N. 1955/1975. *The Logical Structure of Linguistic Theory*. New York: Plenum Press.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
- Chomsky, N. 1959. Review of Skinner, *Language* 35, 26-58.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66. *Cartesian Linguistics*. New York: Harper and Row.
- Chomsky, N. 1968. *Language and Mind*.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Chomsky, N. 1975. *Reflections on Language*. New York: Pantheon.
- Chomsky, N. 1976. Conditions on rules of grammar. *Linguistics Analysis* 2, 303-351.
- Chomsky, N. 1980. *Rules and Representations*. Oxford: Blackwell.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82a. *The Generative Enterprise: A Discussion with Riny Huybregts and Henk van Riemsdijk*.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Chomsky, N. 1988. *Language and Problems of Knowledge: The Managua Lectures*.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93a. A minimalist theory for linguistic theory. Hale, K. and

- S.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93b. *Language and Thought*. London: Moyer Bell.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98. Some observations on economy in generative grammar. Barbosa, P., D. Fox, P. Hagstrom, M. McGinnis and D. Pesetsky (eds). *Is the Best Good Enough? Optimality and Competition in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0a. *New Horizons in the Study of Language and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msky, N. 2000b.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Martin, R., D. Michaels, and J. Uriagereka (eds).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89-155.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1a. Derivation by phase. Kenstowicz, M.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1b. Beyond explanatory adequacy.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20: First half.
- Chomsky, N, and H. Lasnik. 1993. The theory of principles and parameters. Jacobs, J., A. von Stechow, W. Sternefeld, and T. Vennemann (eds). *Syntax: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Berlin: de Gruyter.
- Dinneen, F. P. 1967. *An Introduction to General Linguistic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Allen and Unwin.
- Kenny, A. 1984. *The Legacy of Wittgenstein*. Oxford: Blackwell.
- Labov, W. 1970. The logic of nonstandard English. Kampf, L. and P. Lauter (eds). *The Politics of Literature*. New York: Pantheon.
- Newmeyer, F. J. 1986. *Linguistic Theory in America*, 2nd ed. New York: Academic Press.
- Saussure, F. 1959.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Bally, C., A. Sechehaye,

and A. Reidlinger (eds). Translated from French by Baskin, W.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Smith, N. 1999. *Chomsky: Ideas and Ide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sohatzidis, S. L. 2002. Grammars as objects of knowledge: the availability of dispositionalism. *Language Science* 24, 97-106.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02-3277-2171, shpark@ewha.ac.kr

접 수: 2002년 12월 28일

수정필: 2003년 2월 17일